

## 시대분별\_Timing VIII.

### 골리앗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다윗의 담대함을 배워야 할 때.

---

#### 1. '고통' 받는 미래

[디모데후서 3: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미래 시대는 고통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한다. 고통의 원인은 '욕구불만' 즉, 결핍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다. 결국 채우지 못한 욕구, 욕망, 야망의 결핍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다.

#### 2. 바벨탑

바벨탑이 정의하는 세상의 정의가 있다. 결국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인간 욕망의 결정체가 바벨탑이다.

[창세기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 자 하였더니

바벨탑은 무엇인가? 불안정한 시대와 땅을 향한 인간의 기준이다. 세계관이다. 바벨탑의 관점에서 세상을 정의한다. 그리고 인식한다. 그 인식이 바벨탑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기준이 된다. 바벨탑은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의 최초의 합법적, 연합적 정부이다. 모든 땅의 질서가 바벨탑이 정의하는 기준으로 재구성 되었다.

#### 3.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땅에 새로운 기초와 하나님 나라 통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는 사고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는 기준과 인식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었다.

대표적인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일은,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이었다. 그들이 세웠던 우상 문화를 무너뜨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세우는 일이었다.

#### 4. 골리앗과 다윗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현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상황은 구약에 있었던 블레셋, 특히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루었던 이스라엘과 비슷하다 여겨진다.

##### 1) 바벨론/ 골리앗

강성해진 세상의 문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세상문화의 전쟁선포, 전쟁을 거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실제로 블레셋의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 2) 이스라엘의 상황

[사무엘상 17: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과 골리앗의 공격 앞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다. (사고와 생각의 위축, 영향을 받는 단계) 골리앗이 주었던 실패, 낙망, 두려움의 패러다임을 깨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반응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현 위기상황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블레셋과 골리앗이 한 거점을 선점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집중적 저주를 쏟아붓고 있었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쏟아 부어내는 하나님을 향한 저주의 소리들을 계속 듣고있는 상황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 낸다. 더 나아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늘의 가치를 대적하여 무너뜨리려고 한다.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마치 바벨론의 정의처럼 확산되고 있다.

## 5. 다윗의 해결 - 거점을 선점함 (골리앗을 무너뜨림)

[사무엘상 17:48]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As the Philistine moved closer to attack him, David ran quickly toward the battle line to meet him.

[사무엘상 17:49]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Reaching into his bag and taking out a stone, he slung it and struck the Philistine on the forehead. The stone sank into his forehead, and he fell facedown on the ground.

블레셋 문화의 핵심,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진격했다. 정면승부를 했다. 그렇다. 이제 골리앗을 향해 약진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빼앗겼던 거점을 찾아오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거점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자기 영역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약진하는 다윗과 같은 자들을 통해 일어난다. 이제 움직여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 6. 목숨을 거는 각오로 나아가야 한다.

전쟁의 때이다. 물러설 곳이 없다.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향해 약진하여 달려갔던 모습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담대함이 물러서지 않게 했다. 골리앗을 향하여 강력하게 뛰어갔던 다윗은 목숨을 건 것이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기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 7. 물맷돌의 기름부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물맷돌에 성령의 권능을 부으실 것이다. 물맷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물맷돌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다.

## 8. 이제 나아가야 한다. 돌을 제하고 가치를 들라.

[이사야 62: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가치를 들라

가치를 선점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라. 그 사람에게 새로운 무기가 권위로 주어지는 시  
즌임을 기억하라.

목숨걸고 달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를 정복할 새로운 무기를 주실 것이다. 골리앗의 칼을 주실 것이다. 달  
려가라. 움직이라. 하늘의 전리품을 취하라.